

청소년 음주행동에 미치는 청소년자산의 보호효과

장 승 옥(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문제 제기

알코올은 청소년들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며 음주로 인한 청소년문제는 거의 매일 뉴스거리로 제공될 만큼 심각하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 동료, 그리고 제도적 변화에도 적응을 해야만 하는 과도기로 약물남용이나 일탈행동 등 위험한 행동에 유혹을 받게 된다.

아마도 청소년 음주문제를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알코올문제를 발달 과정과 연관시키는 통합적 체계접근일 것이다. 비록 모든 청소년들이 이러한 결과를 경험하는 동일한 길을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빠른 성장과 재구조화의 시기인 청소년기가 알코올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 적응유연성(resiliency)과 청소년음주문제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는 그동안 국내 알코올분야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지만 인생주기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인생에서 특정 위험요인이나 스트레스가 되는 생애 사건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Werner and Smith, 1992, p.202).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고위험집단이 문제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는 위험요인이 20-49%만을 설명해주는 반면에 보호요인은 50-80%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서구의 연구결과(Benard, 2004, p.8) 적응유연성이 청소년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임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와 문제음주 경험에 청소년자산(youth assets)이 미치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역경의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별탈없이(doing okay)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도록 하는 요인(Benard, 2004), 즉 청소년들의 자산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음주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청소년 자산관점에서 개인의 특성, 가족, 친구집단, 학교와 지

역사회의 지지와 같은 다양한 적응유연성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문제 예방 분야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관점은 위험-보호요인 페러다임이다. Hawkins와 동료들(1992)은 알코올과 다른 약물의 남용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과 가능성을 줄이는 보호요인을 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지역사회에서의 위험요인을 낮추는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위험요인(risk factors)이란 부정적인 결과와 관계되는 개인 혹은 환경적인 특성을 의미하며,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이란 위험요인의 작용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지역사회, 가족, 학교, 그리고 개인/ 친구범주로 나누어 요인들을 분류하는 점이 특징이다. Rutter(1985)는 보호요인이 위험요인과 반대되는 요인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 위험요인의 효과를 수정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규정하는데, 보호요인은 다시 크게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과 환경적 요인들로 나누어진다. 먼저 개인적 수준에서는 개인의 적응유연성(resilience), 긍정적인 대인관계, 문제해결 기술, 자기 효능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경적 보호요인의 예로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가족 간의 갈등 부재, 주위 사람들과의 지지적인 관계 등을 들 수 있다(Rutter, 1990).

2. 알코올문제와 적응유연성

흔히 알코올중독부모의 자녀들은 성인기에 알코올중독으로 고통받을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모의 알코올중독자여부가 자녀들의 알코올관련 문제에 직접적인 차이를 가져오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알코올중독자 부모의 다양한 배경, 복합적인 위험들 및 자녀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알코올문제 이외의 다른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들은 알코올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행동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의 이중진단 특히 우울증과 같은 신경정신적 증상이 병행하는 경우에 자녀들은 내면화된 문제나 외현화된 외적 행동상의 문제

를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Jacob & Leonard, 1986). 또한 알코올중독의 위험을 높이는 아이들의 특성으로는 과잉행동이나 정서과잉, 충동성과 주의력 결핍은 물론 불규칙한 생리적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nsen, Fitzgerald, & Zucker, 1995)

알코올중독자의 성인자녀들의 적응유연성과 취약성을 분석한 Zucker et al.의 연구결과에 따르면(2003, pp.95-97) 첫째, 적응유연성이 높은 집단의 아이들은 지능이 상위권에 속하며 부모가 알코올중독자가 아닌 통제집단과 차이가 없었으며, 알코올중독자 부모를 둔 부적응집단(취약집단이나 문제집단)보다 정서적 반응을 적게 나타냈다. 반면에 취약집단은 역경을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비교해서 과잉행동, 주의력부족과 정서적 반응을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경을 경험했지만 적응유연성을 가진 집단의 아이들은 아동중기와 청소년기 모두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적었으며 학문, 직업, 사회적 발달에 토대가 될 수 있는 성취기술인 독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내면화된 문제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퍼거슨과 호우드의 연구(2003)에서도 아동기에 역경을 많이 경험할수록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외현화된 문제나 내면화된 문제를 경험하기 쉽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역경에 노출된 모든 아동이 문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는 적응유연성 과정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으로 아동기의 역경에 노출된 결과는 이러한 위험요소의 효과를 완화되거나 가속화시키는 일련의 요소 즉 적응유연성의 요소들에 의해 수정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본추출

본 조사는 설문지 구성 후 예비조사를 거쳐 2005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2004년도 교육통계연보에 의거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 중학교 8개, 인문계 고등학교 8개, 실업계 고등학교 8개교에서 훈련된 조사원이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수거된 자기기입식 설문지 1,061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2. 조사도구 및 내용

- 인구학적 변수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성별, 가정생활 정도, 학업성적, 부모의 직업 및 부모의 음주문제 여부를 조사하였다.
- 음주행위 : 음주자는 지난 1년간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문제음주자는 청소년문제음주 선별도구인 Crafft 문항에서 2점 이상인 경우 문제음주자로 규정하였다.
- 적응유연성 : 적응유연성을 측정하는 항목 26개를 ‘그렇다’ ‘아니다’로 측정하였다. 26개의 적응유연성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영역 즉 가족의 지지(7문항), 학교의 지지(5문항), 지역사회의 지지(5문항), 또래의 영향(3문항) 및 개인적 강점(6문항)으로 나누어졌으며 각 영역의 신뢰도(cronbach alpha) 계수는 가족의 지지가 .802, 지역사회지지가 .879, 학교지지가 .833, 친구의 지지가 .780, 개인적 강점은 .539 개인적 강점은 조금 낮았지만 다른 영역은 모두 바람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적응유연성 영역은 다시 각 영역에서 평균보다 높으면 적응유연성이 높은 집단, 낮으면 적응유연성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3. 분석방법

실태조사 자료입력과 데이터 정리, 편집과정을 거친 후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음주자와 문제음주자에 대한 각 영역의 적응유연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상대교차비(odds ratios)를 측정하였다. 다음 단계로 음주자와 문제음주자에 대한 적응유연성 5개 영역과 인구학적 변수(성별, 학업성적, 부모의 음주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로지스틱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에서는 P값이 $\leq .05$ 인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IV. 청소년 음주실태

1. 음주자와 음주문제자

음주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는 CRAFFT¹⁾로 6개 항목 중

1) CRAFFT는 청소년의 알코올 및 약물사용에 대해 간단하게 선별할 수 있는 도구로 미국에서 개발되었다.

2개 이상 '예'라고 응답하면 문제음주자라고 본다. 중학생은 39.7%가 음주자 이 중 8.7%가 문제음주자인 반면 실업고는 76.2%가 지난해 음주를 한 경험이 있고 이 중 41.5%가 문제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 중 60% 이상은 지난 한해 술을 마신 경험이 있고 이 중 25.9%가 문제음주자로 분류되었다. 남자는 57.2%가 음주자이며 여성은 63.3%가 음주자인 반면 문제음주자는 남자 청소년의 22.7%, 여자 청소년의 19.3%가 해당된다. 성적은 낮을수록 음주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경험과는 관련이 있으나 문제음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부모의 음주문제는 음주경험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보여주지 않지만 문제음주에는 영향을 미친다.

2. 적응유연성과 청소년음주

음주자/비음주자와 문제음주자/비문제음주자와 적응유연성의 관계는 예상대로 많은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의 지지가 음주경험이나 음주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더 중요하고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취미생활이나 교내외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 음주경험의 촉진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또래친구들의 영향은 남녀모두 음주나 문제음주를 유발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또래관계는 음주문제 개입에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사한다.

적응유연성의 영역별 음주자의 상대적 위험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분석을 시도한 결과 친구지지 영역과 개인적 강점 영역은 상반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지지 영역에서 적응유연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1.5배가 되며, 개인적 강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의 70% 정도로 음주자가 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구의 지지와 개인적 장점은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음주자를 판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문제음주자를 판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응유연성 영역은 가족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이다. 가족의 지지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문제음주자가 될 위험이 58%에 불과하지만 친구의 지지가 높은 집단은 1.8배가 된다. 이 두 적응유연성 영역은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다.

음주운전 여부(CAR), 긴장완화를 위한 알코올 사용(RELAX), 혼자 마시는지 (ALONE), 음주 후 행동을 잊어버린 경험(FORGET),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절주 권유(FRIEND), 음주 후 말썽 경험 (TROUBLE)의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 이상 '예'라고 응답하면 음주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CRAFFT를 개발할 때 측정된 신뢰도는 .68로 나타났는데, 본 조사에서 측정해본 신뢰도는 .64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의 영역과 음주와 문제음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적응유연성은 청소년 음주와 문제음주와 매우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첫째, 청소년음주와 문제음주와 적응유연성 영역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관계의 방향과 정도도 적응유연성의 영역별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에 비해 가족의 지지가 중요한 적응유연성의 영역이며 개인적 강점에서도 남학생들의 경우 교내외 활동과 취미활동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상위학교에의 진학기대가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청소년의 음주경험과 적응유연성의 관계는 문제음주와 적응유연성의 관계와 차이를 보인다. 즉 음주를 하기가 쉬운 청소년들은 개인적 강점영역에서 평균보다 높은 적응유연성을 보이는 집단과 또래친구의 지지 영역에서 높은 반면에 문제음주가 되기가 쉬운 청소년들은 부모가 음주문제가 있고, 또래의 지지가 높으며, 가족의 지지가 낮은 청소년들이므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음주나 문제음주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적응유연성 문항이 정교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적응유연성이 청소년을 음주와 문제음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음주와 문제음주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실천가나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지는 음주나 문제음주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수로 개입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호요인과 청소년음주의 관계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